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EBS 연계 작품 - 유리창>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백한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러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琉璃窓)1」 -

(나)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울봄도 잎을 내었다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榕樹)처럼  
 제 ㉡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시켜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  
 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새들어 사는,  
 구름 몇 점 별 몇 개 튀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마약 퍼들고 있다  
 -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나)는 계절적 배경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동적 심상을, (나)는 정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시상을 확대하고 있다.
- ④ (가)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나)는 자연을 인간에 빗대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소재가 지닌 속성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는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속성을 통해, (나)는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생명을 이어가고 생(生)의 터전이 되어 주는 모습을, 스스로를 태우고 불을 피우며 온기를 품는 '아궁이'의 속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유리'와 '아궁이'는 각각 단절과 소통,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 ① (가)의 화자가 창밖의 세계에 있는 '너'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이 지닌 차단성에 기인한 것이겠군.
- ② (가)의 화자가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며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이 지닌 투명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겠군.
- ③ (나)의 '고목'이 발이 묶인 채 하늘을 밀어올리는 모습에서 ㉡이 지닌 소멸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고목'이 새들과 다람쥐 일가의 생의 터전이 되는 것에서 ㉡이 지닌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고목'이 자신의 살을 달이는 모습과 이를 내놓는 모습에서 ㉡이 지닌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겠군.

3. 윗글을 읽고 아래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탐구 과제]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의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와 (나)는 서로 대응되는 지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모둠별 토론을 통해 두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대응 요소들을 탐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탐구 결과]

- A. 행위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B.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집약하여 제시함.
- C.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대응 요소	판단 근거	
A	(가)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를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나)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를 통해 자연의 부단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가)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통해 죽은 자식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모순된 심리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나)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를 통해 불에 타 버렸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고목의 이중적 속성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	(가)	'산(山)새'는 화자의 품을 떠나 버린 작고 연약한 자식을 비유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나)	'새'는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EBS 연계 작품 - 독을 차고>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4.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독자의 상상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김영랑의 초기 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내 마음'을 노래했다. 그러나 그의 후기 시를 보면 외부 세계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일제 말기라는 식민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1939년에 창작된 「독을 차고」라는 작품 속의 화자는 외부 세계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화자의 모습은 곧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시인의 자화상으로 볼 수 있다.

- ① '새로 뽑은 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리 승냥이'는 화자가 독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내맡긴 신세'는 화자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에서 부정적 외부 세계에 맞서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⑤ '외로운 혼'은 식민지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은 시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6.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에서 2연으로 전개되면서 시상이 반전되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1연에서 벗어 화자에게 한 충고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시행에 변화를 주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⑤ 1연에서 4연으로 진행되면서 현재에서 과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EBS 연계 작품 - 자화상(2011학년도 수능)>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  
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A]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서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B]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디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9.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EBS 연계 작품 - 상한 영혼을 위하여>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 손을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靑紅)실  
따라서 가면  
가슴속 아우성은 절로 갈앓고

[A]

처음 보는 수풀  
정갈한 자갈들의  
강변에 이른다.

남향 햇볕 속에  
수를 놓고 앉으면

세사 번뇌(世事煩惱)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 내올 듯

머언  
극락정토(極樂淨土) 가는 길도  
보일 상 싶다.

- 허영자, 「자수」 -

(나)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다)

슬픔을 위하여  
슬픔을 이야기하지 말라.  
오히려 슬픔의 새벽에 관하여 말하라.  
첫아이를 사산(死産)한 그 여인에 대해 기도하고  
불빛 없는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그 청년의 애인을 위하여 기도하라.  
슬픔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새벽은 언제나 별들로 가득하다.  
나는 오늘 새벽, 슬픔으로 가는 길을 홀로 걸으며  
평등과 화해에 대하여 기도하다가  
㉤ 슬픔이 눈물이 아니라 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저 ㉤ 새벽별이 질 때까지  
슬픔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말라.  
우리가 슬픔을 사랑하기까지는  
슬픔이 우리들을 완성하기까지는  
슬픔으로 가는 새벽길을 걸으며 ㉥ 기도하라.  
슬픔의 어머니를 만나 기도하라.

- 정호승, 「슬픔을 위하여」 -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타인의 아픔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심리적 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극한 상황 앞에서 도피하려는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12. ㉠의 시적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3. [A]가 <보기>를 바꿔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바꿔 쓰는 과정에서 기대했음직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부지런히  
바늘을 움직이면  
가슴속 고뇌는 잠잠해지고  
  
어느덧 마음은  
고요하고 정갈한  
평화의 세계에 다다른다.

- ① 공간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배경의 분위기를 희망적인 것으로 바꾼다.
- ③ 감각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한다.
- ④ 기도하는 어조로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 ⑤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다르게 한다.

14. <보기>를 참고로 할 때, 발상과 표현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 보 기 —

‘슬픔’은 곧 ‘눈물’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에서는 ‘슬픔’이 긍정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심오한 의미를 담는 발상과 표현은 시를 참신하고 매력 있게 만들 수 있다.

- ① 벼는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 / 햇살 따가워질수록 /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이성부, 「벼」 -
- ② 하늘을 생각하다 잠이 들면 나는 하늘을 나는 한 마리 새, 연두색 부리로 꿈을 쪼으며 하늘을 집으로 삼은 따뜻하고 즐거운 새  
- 이해인,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 -
- ③ 접동새, 우는 접동새야! / 네 우지 말아라 / 무슨 원한이 그다지 골수에 / 사무치길래, / 밤중만, 빈 달에 피나게 울어 / 남의 애를 끊느니.  
- 신석초, 「바라춤」 -
- ④ 이별은 미(美)의 창조(創造)입니다. / 이별의 미(美)는 아침의 바탕(質) 없는 황금(黃金)과 밤의 울(絲)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 한용운, 「이별은 미의 창조」 -
- ⑤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 여름 산(山) 같은 /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 서정주, 「무등을 보며」 -

15. <보기>의 상황을 바탕으로 (나)를 창작했다고 할 때, 소재와 형상화된 시구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경기도 ○○에 사는 김보람 양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 그리고 어린 세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오래 전 한쪽 눈을 잃었으며 남은 눈마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김 양은 장차 의사가 되어 아버지와 같은 불쌍한 환자들을 돕고 싶어 한다. 김 양은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맡아 한다. 수업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뒷산에 올라 땀감을 저 오는 것도 김 양 몫이다. 하지만 김 양은 고통스러울수록 열심히 공부하며 일부러 웃음을 보이려고 애쓴다. 김 양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웃 사람들의 격려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김 양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아리 선배 이해란 양은 김 양의 의지가 되는 든든한 벗이다. 김 양은 이 양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며 평소 꿈꾸어 온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보기>의 상황	시구
① 가련한 처지의 김 양	→ ‘상한 갈대’
② 인내하며 노력하는 김 양의 태도	→ ‘뿌리 깊으면야’
③ 이웃들의 도움	→ ‘물 고이면’
④ 의사가 되려는 김 양의 소망	→ ‘가자 고통이여’
⑤ 벗과 같은 선배	→ ‘마주 잡을 손 하나’

<EBS 연계 작품 - 상한 영혼을 위하여>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B]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16.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적으로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17.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밑둥'과 [B]의 '개울'은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한다.
- ② [A]의 '한 계절'과 [B]의 '지는 해'는 극한 상황을 비유한다.
- ③ [A]의 '새순'과 [B]의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 ④ [A]와 [B]에는 모두 현실 부정의 비판적인 어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18. 다음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활동 >

**활동 목표:** 시에 쓰인 어구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 1: 시상을 고려하여 ㉠과 관련된 어구를 시에서 찾아 표에 넣어 보자.

활동 2: 위의 어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적어 보자.

활동 3: 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의 다양한 시적 의미를 해석해 보자.

활동 1의 탐구 결과	활동 2의 탐구 결과	활동 3의 탐구 결과
갈대	흔들리는 존재	㉠
하늘	초월적인 공간	㉡
바람	막을 수 없음	㉢
밤	부정적인 상황	㉣
손	만남의 대상	㉤

- ① ㉠: 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은 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하겠군.
- ② ㉡: 1연과 3연에서 '하늘'의 아래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은 초월적인 공간에 대응되는 현실적인 공간을 뜻하겠군.
- ③ ㉢: 3연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④ ㉣: 3연에서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⑤ ㉤: 3연에서 '손'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을 뜻하겠군.

<EBS 연계 작품 - 송인, 무어별>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 개인 긴 독에 ㉠ 풀빛이 푸르는데, 雨歇長堤草色多  
 남포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送君南浦動悲歌  
 대동강 물은 언제 말라서 없어질까? 大同江水何時盡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을 더하는 것을. 別淚年年添綠波  
 - 정지상, 「송인(送人)」 -

(나) ㉡ 노래 삼킨 사람 시름도 하도 할사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듯롭가  
 眞實(진실)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 신희 -

(다)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피헤 매계 림친 ㉢ 가토리 안과,  
 大川(대천) 바다 한가온롬 一千石(일천 석) 시른 림에, 노  
 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것고 치도 림지고,  
 림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림자진날에, 갈 길은 千  
 里萬里(천리 만리) 나쁜디 四面(사면)이 거머어득 저못  
 天地寂寞(천지적막) 가치노을 림 림디, 水賊(수적) 만난  
 ㉣ 都沙工(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훤 내 안히야 엇  
 다가 림을림리오.  
 - 사설시조 -

(라)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  
 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  
 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동네외까지 할 절  
 척(切戚)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  
 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  
 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꽤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뵈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  
 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  
 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  
 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웃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러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  
 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끔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  
 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돛자리 길이  
 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  
 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곧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련수련하는 기색이 들렸다. ㉤ 노파의 은근  
 한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촌에  
 서는 별식이니 맛있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  
 쩍 적삼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애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깃  
 훑쳐본 나는 숨어서 ㉥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  
 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 윤오영, 「부끄러움」 -

19.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다)는 이별로 인한 애상적 정서를 극복하고자 한다.
- ② (가), (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회의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 (다)는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 (라)는 회상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다)의 화자, (라)의 필자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별의 한을 '강물'에 비유하여 극대화하고 있다.
- ② '풀빛'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결구에서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서경과 서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⑤ 대동강변에서 이별하는 장면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21.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어 정서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 시름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③ ㉢: 시적 화자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 '나'와 '소녀'가 심적으로 겪고 있던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⑤ ㉥: 소녀의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22. (다)의 ㉠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것은?

- ① 격세지감(隔世之感)
- ② 배은망덕(背恩忘德)
-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 ⑤ 점입가경(漸入佳境)

23. (라)의 '소녀'와 유사한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 ① 가위로 싹둑싹둑 옷 마르노라면  
추운 밤에 손끝이 호호 불리네  
남의 혼수감 옷만 만들고 있으니  
올해에도 나는 또 혼자 잠드는구나.  
- 허난설헌, 「빈녀음(貧女吟)」 -
- ② 梨花雨(이화우) 흐름릴 제 울며 잡고 離別(이별)롭 님  
秋風落葉(추풍 낙엽)에 저도 날 림각림가.  
千里(천 리)에 외로운 림만 오락가락림노매.  
- 계랑 -
- ③ 뿔뿔 림 림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림 ,  
자시림 窓(창) 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
- ④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림냐.  
이시라 림더면 가라마림 제 구림여  
보림고 그리림 情(정)은 나도 몰라 림노라.  
- 황진이 -
- ⑤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  
남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고야.  
돌아와 중문을 닫아 걸고서는  
배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 임제, 「무어별(無語別)」 -

24. (라)의 표현이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은은하고 담담한 어조를 취하고 있다.
- ③ 비약과 압축을 주된 표현으로 하고 있다.
- ④ 필자 자신의 미묘한 감정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 ⑤ 어린 시절 인상 깊었던 하나의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EBS 연계 작품 - 유리창, 송인>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 처럼 날러 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 I」 -

(나)

물로 사흘 배사흘  
먼 삼천 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 삭주 구성은 산을 넘은 육천 리요.  
물맞아 함빡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삭주 구성은 ㉣ 산 넘어  
먼 육천 리  
가끔가끔 ㉤ 꿈에는 사오천 리  
가다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가며 아니합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 구름은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텐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 리

- 김소월, 「삭주 구성」 -

(다)

비 개인 긴 언덕에는 ㉦ 풀빛이 푸른데 雨歇長堤草色多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送君南浦動悲歌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大同江水何時盡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別淚年年添綠波  
- 정지상, 「송인(送人)」 -

2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 ②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다.
- ③ 대상의 상실에서 오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긍정적 현실 인식을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 ⑤ 화자의 내적 갈등과 그 해소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6. (가)의 '산새'와 (나)의 '제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산새'와 '제비'는 모두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
- ② '산새'와 '제비'는 모두 화자와 대비되는 자유로운 존재를 상징한다.
- ③ '산새'와 '제비'는 모두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이다.
- ④ '산새'는 그리움의 대상이고, '제비'는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상관물이다.
- ⑤ '산새'가 희망적 정서를 드러내는 반면, '제비'는 절망적 정서를 드러낸다.

27. 발상 및 표현이 ㉠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드리지
- ②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③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④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드는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뜻대 끝에/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 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28. ㉠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나 / 세상에 알아주는 이 없네 / 창 밖엔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 등불 앞의 마음은 만 리 밖을 내닫네.
- ②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난가. /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③ 열 여섯 살의 아리따운 아가씨 / 사람이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이별했네. / 돌아와 곁문을 닫아 걸고는 / 배꽃처럼 하얀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 ④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 달 비친 사창(紗窓)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 꿈속의 님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 문 앞의 돌길에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 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 물살 몰아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절과 소통의 매개체이며 안과 밖의 경계 역할을 한다.
- ② ㉡: 현실과 대립되는 부정적 공간을 의미한다.
- ③ ㉢: 소망이 실현되는 가능성의 공간을 의미한다.
- ④ ㉣: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사물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⑤ ㉤: 화자의 슬픔과 대비되어 이별의 정한을 더욱 깊게 만든다.

30.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서경과 서정의 조화를 통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 ④ 과장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EBS 연계 작품 - 길재의 시조>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나) ㉢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길재 -

35. (가), (나)의 형식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4음보의 율격을 가진다.
- ② (나)는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3단 구성의 짜임을 취한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이야기 전달에 목적이 있다.
- ⑤ (가), (나)는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에 나타난 작가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가)는 승려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고, (나)는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모친 봉양을 핑계로 고향에 은거한 작가가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는 작품이다.

- ① ㉠: 어느 가을의 때 이른 바람이라는 인식을 통해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군.
- ② ㉡: 극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통해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는군.
- ③ ㉢: 오백 년 도읍지라는 시간과 장소의 제시를 통해 단절된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군.
- ④ ㉣: 자연은 변함없는데 고려의 옛 충신들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군.
- ⑤ ㉤: 태평한 세상이 꿈속에만 있겠느냐는 각성을 통해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군.

<EBS 연계 작품 - 도산십이곡>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들 엇더흐며 저런들 엇더흐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흐료  
흐믈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흐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씀홀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조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조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흐애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흐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므음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흐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름과흔가지라  
흐믈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순풍: 순박한 풍속.  
\* 피미일인: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 교교백구: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어약연비 운영천광: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38.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39.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이 충분한 샘이 있고, 땀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천 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 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꾀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EBS 연계 작품 - 도산십이곡>

[40~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쏠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2] 어찌서 상고 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넷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3]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 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었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가! 성인(聖人)도 모두가 함께 하는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올바르고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 이용휴, 「수려기(隨廬記)\*」 -

\* 수려기: '따르며 살리라'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

(나)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단는 대로

㉠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 큰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참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앓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텐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술술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술술 녹네  
 -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가」 -

[A]

\* 황연대각 : 환하게 모두 깨달음.  
 \* 화용월태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

[B]

\* 초야우생 :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4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4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는 풀, 그림자, 메아리 같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람 역시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음을 유추했다.
- ② [2]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별의 운행과 냇물의 흐름을 들어서 밝혔다.
- ③ [3]에서는 우임금과 공자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④ [4]에서는 자문자답을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 ⑤ 글의 중간 중간에 '따름'의 여러 측면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였다.

42.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텐동어미는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텐동어미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준비를 하겠군.
- ③ 텐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청춘과부는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렸군.
- ⑤ 청춘과부는 가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군.

43. [A]와 [B]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③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 ② ㉡은 하늘의 별이 지상의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어 준다는 의미이다.
- ③ ㉢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④ ㉣은 성숙한 인간이 가진 안목을 의미한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